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May 1,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96번 - 어린이 주일 찬 송 / 563장 - 예수 사랑하심을 (통일찬송 411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540장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찬송 219장) 봉 헌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15:25-32 <b>큰 아들의 어리석음</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09장 - 목마른 내 영혼 (통일찬송 409장)
살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2:8-17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십시오.
  - 어린이 주일**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간입니다.
  - 오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 모임 및 예배 공지** 오늘 (5/1) 자녀들과 함께하는 전교인 볼링 이벤트를 가집니다. 5시(Arlington Lane)  
 5월 8일 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기도운동** 오순절의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
    -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5월의 사역 - 어린이 주일(5/1) 만남과 나눔 주간(1-7) 아버지주일/Mother’s Day(5/8)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8-14) 소금과 빛 된 주간(15-21)
- ♥5월 생일축하♥ 구민(8) 구민우(16) 김진숙(17) 최내권(20)

###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 예배섬김이

	4/24	5/1	5/8	5/15
주일예배기도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4/24	5/1	5/8	5/15
주일헌금위원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4월	5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잃은 버린 양과 동전 / 누가복음 15:1-10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였고, 여인에게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돈 이상의 소중한 대상이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찾았을 때 기쁨이 넘쳤다.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이기에 찾은 기쁨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마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 즉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죄 값을 지불해 구원 받은 우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 천국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나? 길을 잃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나의 길을 내 스스로 간다는 고집을 내려놓은 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를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자.

### 큰 아들의 어리석음 / 누가복음 15:25-32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만 불효자였나?

아버지를 곁에 머문 큰 아들의 잘못

-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 즐거운 잔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큰 아들

몸은 교회에, 마음은 세상에/예배하는 자리와 있으나 욕심에  
적우되고/ 사역하는 자리에 있으나 섬기려하고.

몸과 마음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

### 큰 아들의 어리석음 / 누가복음 15:25-32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다. 집에 돌아 온 큰 아들은 흥겨운 잔치소리에 영문을 모른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노했다. 이 모습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먼저, 큰 아들은 아버지께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 잔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수 있는지 그는 이해 할 수 없었다.

이 불평이 일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돌아온 탕자인 동생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에 남아 있던 큰 아들 역시 불효자였다. 그는 비록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진심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은 아들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된다. 무엇보다 떠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다.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아버지를 떠났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다. 반면 큰 아들은 몸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으나 그의 마음은 탕자인 동생만큼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어리 석은 큰 아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은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큰 아들에게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하는 아버지의 권고에서 마친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은 당신의 몫이다. 큰 아들인 당신은, 서운할 수도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몸과 마음 모두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삼과 신앙

### 당신이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아무 소용없다.  
욕심이 생기는 것을 피하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데,  
봉사하는 것이나 사역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면 정리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안식을 누리라.

취미활동도 너무 지나치면 노동이 된다. 취미나 놀이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라. 쉬려고 시작했 던 취미에 지배당하지 말라.  
가끔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찬양하며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보자.

소그룹 구성원과 함께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누리자.  
함께 웃고 함께 울자. 그런 관계와 나눔 이 안식과 쉼으로 이어진다.

하나님 안에서 노는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놀고 쉬는  
시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놀고 쉬는 시간에 절대로  
죄책감을 갖지 말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작은 것 하나 하나  
모두 만끽하며 누리라.

날씨가 좋으면 화창한 날씨를 누리고, 비가 오면 고즈넉한 운치를  
누리고, 바람이 불면 그 시원함을 누리자.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지 않나 걱정하지 마라.  
주일은 하나님이 분명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과 축제의 날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임을 기억  
한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식할 수 있다.  
쉼과 회복을 얻고 세상 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도 하신다.  
성경 한 구절만 붙잡으면 어려워진다. 쉬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균형이 중요하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깊은 평안과 쉼이 이루어질 것이다.

홍민기,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

##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8)



### 첫째 아들

“제가 흠 묻은 손을 씻기도 전에 흥겨운 음악과 값진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 아이를 용서하나이까. 더럽고 염치 없는 저 아이를 받지 마소서. 어찌 추수를 위해 수고한 제 손은 한번 안 잡으시고 쾌락을 좇아 병든 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까. 저 아이들 벌하소서. 제가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아이는 매일 환락을 좇았습니다. 당신이 기다림에 눈물 초차 말랐을 때 추악함에 눈이 얼었던 저 아이는

이제사 무릎을 꿇으니 저는 분노로 눈이 멍니다. 아버지, 부디 저 아이를 벌하소서.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나이다.



### 아버지의 마음

다행이다. 우리 막내가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돌아왔구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슬프지만 안도하고 사랑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저 아이가 떠날 때 나는 이미 용서했다. 저 아이가 무릎 꿇고 내가 안아 주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처음에 그랬듯이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하라.

###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고백

언제가 제게 줄 것을 지금 제 손 안에 주소서. 이 세상은 즐기지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나는 휘파람 불며 떠났네.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가 땀가 되었을 때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산산히 흩어져 사라졌네. 온몸에 썩은 내가 진동하여 진흙 묻은 돼지조차 나를 피하는구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는 가진것 없는 죄인으로 당신 아들로서 자격이 없고 그저 무릎 꿇어 당신의 종이 되고자 하나이다. 저를 감싸 안아 주시는 따뜻하고 주름진 손에 저는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고 이 모든 말이 입 안에만 맴돌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임마총과 저의 침묵에 제 형은 이를 갈며 저주하고 있으나 저는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디 불쌍한 저를 위해 울어주소서. 저를 안아 주소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은 14:27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